

제 136 호

북자 김 신부 외부행사

1975. 7. 6.

숲정이

발행인	김 종 택
인쇄인	범 석 규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601번지
가톨릭센터 내 (전화 33498)

□강 론□

산다는 의미

김 정 원 신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계시면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생명을 주십니다」(로마 8·10)

흔히 우리가 인생(人生)이라고 할 때 그것은 인간생활(人間生活)의 약칭으로서 인간이 이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산다」는 뜻이다. 생의 구체적인 표현을 의미한다.

우리 동양 말에서는 인간(人間)과 인생(人生)이 확실히 구별된다. 인간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해서 존재론(存在論)적인 의미를 가진데 비해서, 인생은 그것의 구체적인 표현을 뜻한다. 서양 말로에서는 이 양자의 구별이 확연치 않다. 「라이프」라든가, 「레벤」이라든가, 또는 「비다」라고 할 때 위에 말한 두 가지의ニュ앙스를 구별하기가 어렵다.

인간(人間)이란 그 외연(外延)상으로 봐서 우선 「성장(成長)을 생각할 수가 있다면 인생(人生)이라는 의미속에는 인간이 처음부터 그 사회성(社會性)을 띠는 입장에서 인간은 하나의 「교제(交際)적인 동물, 따라서 「사랑」의 존재자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교제에 있어서 사랑은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존재론적인 하나의 생명체가 그냥 막연하게 이 세상에 던져 버려진 것이 아니고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 구체적인 생명의 표현양식으로 존재하는 것이기에 여기서 인생의 상통(相通) (푸른 나까지 온)에 의한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랑이 없다면, 「너」와 「나」와의 관계의 전제는 필요없는 것이고, 따라서 인생이라는 뜻은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단순한 외연(外延)적인 연장(延長) 즉 외연적인 성장(成長)만 있을 뿐, 인간의 참다운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동·식물이 자라나는 그것과 아무런 다름이 없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놓고 볼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인생(人生)이 중요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교제」며 「상통」이며 따라서 여기에서 사랑이 도출(導出)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산다」는 것은 사랑을 뜻한다 「삶」 그 자체는 사랑을 의미한다. 이것은 가정에 있어서 부부간의 애에서 부터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이 사실을 보다 두드러지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의 사랑이다. 사랑의 강조는 바로 「이웃」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너」와 「나」와의 관계속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랑의 삶이 영위될 때 인간은 비로소 단순한 외연적인 성장만이 아니고 정신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성숙」이라고 한다.

이제 우리는 성숙되어야 하겠다. 이것이 바로 「산다」는 뜻이다. 그리스도 신자는 누구나 하느님의 영인 성령을 받았기에 그것은 생명을 의미한다면, 성령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성숙시킬 의무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비로소 산다는 의미가 나온다.

(수류 천주교 주임신부)

✽이 주일의 미사✽

가톨릭 기도서 P 493

(1) 개회식

□**입당송** 그 성원은 하느님의 법을 위해 죽기까지 싸우며 악한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그는 굳은 반석 위에서 있었다.

말씀의 전례

□**제1독서** (역대기 후서 24 : 18-22)

너희는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자카리아를 죽였도다.

□**창세송** ◎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기나이다.

내 몸을 막아주는 큰 바위/나를 살리는 굳은 성체 되소서/내 바위 내 성체는 당신이시니/당신의 이름으로 날 이끌어 데려가 주소서.◎

□**제2독서** (로마 5 : 1-15 성서 p 435)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뻐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행복하여라,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들/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

□**복음** (마태오 10 : 16-23 성서 p 21)

박해를 작으하라.

□신자들의 기도

1. 주여! 79위 한국 순교복자 시복 50주년을 맞이하여 비오니/우리도 복자들의 순교정신을 본받아/정의 안에서/어둠이 있는 곳에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며/특히 복자 김대건 신부님을 기념하는 오늘/더욱 복자의 순교정신은/우리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어/소금과 누룩의 역할을 하며/아울러 성인품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주여, 우리의...

2. 오로지/당신 뜻 안에서 사목생활을 하시다 은퇴하시는/오기순 신부님을 위하여 비오니/영육간에/당신의 사랑으로 건강을 주소서.◎

3.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비오니/주여! 고통안에서 곳곳이 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고통안에서 당신을 만나며/당신안에서 위로를 받아/ 고통을 승화시킬 수 있도록 저들을 도와 주소서.◎

(3) 성찬의 전례 □불린 □성찬식

□**영성체송** 나를 따르려면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하느니라.

숲정이 산책



경사났네

복자 김대건 신부님의 서간

지극히 공경하올 베르뇌 신부, 매스뜨르 신부, 리박 신부, 르그레라 신부 좌하

지극히 공경하올 여러 신부들께 편지 한 장만을 쓰면서 생각하오니, 여러 신부님께 실례되는 듯 하오나, 지금 내가 있는 장소의 환경과 신부들께 대한 나의 정성과 애정이 이렇게라도 쓰도록 강요하나이다.

음력 3월경에 지극히 현명하시고 지극히 공경하올 교주교의 지휘하시는데로 저는 배를 타고 백령도에 갔던 것이다. 거기서 고기잡이 하는 여러 배를 만나 여러 신부께로 보내는 라틴어 편지와 한글 편지를 그들에게 전하였으나, 그 후 이 편지는 모두 다 조선 포졸들에게 발각되어 압수되었던 것이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다른 교우 배사람과 함께 체포되어 다같이 결박을 당하여 경성으로 압령되어 왔어온바, 올라오는 도중 여러 유내에서 밤을 지날 때마다 모든 백성이 우리를 구경하려 모여들었다.

나는 마치 외국인처럼 잡혔나이다. 경성에 와서 보니 여러 교우들이 잡혀 있으며, 미구에 현 가오로 역시 교회를 위하여 활동하던 여교우 다섯 사람과 함께 체포되었던 것이다.

내게 있던 돈, 제의(祭衣)같은 물건도 압수되었으며 지금은 초포들이 교우를 잡으러 훑어졌사온데 누구보다도 주교의 복사 도마를 체포하려 하는고로, 주교께서와 신부께서 피착되실까 염려되나이다. 내가 편지(註·부치려던 교주교편지)로 인하여 여러가지 힐문을 당한 것을 생각하면 이번에는 큰 박해가 일어날 것이옵니다.

나는 함께 갇혀 있는 교우들을 교해성사로 위로하여 주며, 예비교우 두사람에게는 성해성사를 주었나이다. 나 있는 옥에는 열명이 함께 갇혔고 다른 옥에는 아마 7·8명이나 되는것 같나이다.

나는 관장들에게, 불란서는 강국이오 또한 공영한 나라와 시비하지 않는 관대한 도량이 있는 것도 여러번 말하였더니 그들도 내 말을 믿는듯 하였으나 그러나 불국인 신부들을 죽인 후에도 불국으로 부터 아무런 처단도 받지 않았다는 이유를 그들이 말하더이다. 그래서 불국인을 무시위하여 나를 죽이기를 두려워도 하나 또한 위에 말한 이유로 인하여 그런 두려움은 없어졌나이다.

지금은 천주의 특별한 안내가 아니면 교우들이 선교사들을 조선으로 인도하여 안거(安居)하게 할 방책이 없으니...중국인들의...조선 왕께 복종하겠습니다. (註 희미하여 알수 없음) 비록 조선 교우들이 선교사들을 영접하려 하지 못할지라도 신부들은 영국 배를 타고 나오도록 주선하시기를 바라나이다. 이만 붓대를 놓으며 여러 신부들께 최후로 하직인사를 드리오니 지극히 현명하신 베르

뇌신부 좌하는 안녕하시기를. 지극히 공경하올 매스뜨르 신부는 안녕하시길. 나의 지극히 공경하올 리박신부는 안녕하시기를. 지극히 공경하올 르그레라 신부는 안녕하시길. 미구에 천당에서 영원하신 성부대전에 서로 만나 보기를 바라오며, 나를 대신하여 다른 모든 공경하올 신부께 문간하여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나의 극히 사랑하올 친우 도마여. 이후 천당에서 서로 만나보자. 그리고 우리 어머니 울술라를 특별히 보호하여주시기를 그대에게 간청하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한 나는 또한 그리스도의 성총을 믿고 있나이다. 친주께서는 나로 하여금 끝까지 모든 혹독한 형벌을 감수하도록 도우시기를 바라나이다. 주여! 우리를 공영히 여기소서. 우리의 환난을 도우소서. 너 만일 죄악을 살피시면 주여, 누 능히 내게 당하리이까!

지극히 공경하올 신부들은 안녕하시기를. 산동(山東) 어선들은 음력 3월에 백령도에 나오고, 음력 5월에 돌아가나이다.

무익하고 불초한 중
조선 교구를 위하여 옥중에 있는
조선 선교사 아드레아.
1846년 음력 6월 9일

김 대건(안드레아) 신부의 약력

김 대건 신부는 1821년 8월 21일 충청도 내포 솔피에서 김 이냐시오(제준)씨와 고 울술라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1836년 경기도 용인에서 모방신부에게 안드레아란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뒤 그해 12월에 다른 2명과 함께 마카오에 유학차 서울을 떠났다. 많은 고난과 역경속에서 1844년 12월 15일 만주에서 부제품을 받고 1845년 1월초에 서울에 도착. 그러나 당시 대원군의 철저한 쇄국정책으로 인하여 9년만의 귀국이냐 7년전에 부치 이냐시오가 순교한 후 홀로 계시는 어머니 울술라께 알리지도, 보지도 못한채 다시 상하이로 출발, 1845년 8월 17일 상하이 강가합에서 페레올(Ferreol)주교에 의해 사제서품을 받음으로써 첫 한국인 신부가 탄생되었다. 그는 상하이에서 1845년 10월 12일 조선방 강경 횡신포에 도착. 도착후 서울 근방에서 전교를 하니 한국말로써, 한국인 신부에게 미사, 교리, 교백성사를 받으니 신자들의 기쁨은 어떠하였으랴! 그러나 그는 1846년 6월 5일 관원에게 발견 체포되어 사학피수라는 죄목으로 서울로 압송 감금되다 새남터에서 사형을 당하여 순교하니, 신부된지 1년 1개월만인 1846년 9월 16일이다.

그후 1925년 7월 5일 로마의 대성전에서 베오 XI 교황에 의해 복자로 선언되었다. 이어 1949년 11월 15일 베오 XII교황은 한국 성직자들의 주보로 추대 선언되어 매년 7월 5일은 김 대건 신부의 축일 의무행사를 갖는다. (현재 유해는 서울 가톨릭대학 신학부성당에 안치)

녹음기 · 전축 · TV · 확성기
중고품 낱장고 사고 팝니다

백운전파사

이 데레사 전화 ㉓ 0231
중앙시장동 시민약국 옆

*경운기 · 분무기 · 탈곡기
*트랙터 · 양수기 · 농기구 일절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승엽(바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전화 5116, 6114, 3547)

K.S사자표 페인트 대리점
박도카슈 대리점
표구체로 각종한지
실크 출입벽지 파이텍스

대동지물상사
대동페인트상사

전주시 풍남동 1가17번지
전화 5986
임정원(도민교)

□시상□

□그리기 글짓기□

*** 전동성당 60주년 기념 그림 그리기 시상 ***

-그림 그리기-

(국민학교)

우수상

이 영노(중앙) 박 소진(전동) 송 정훈(덕진) 장 미연 이 상숙(복자)
김 훈우(중앙)

특선

배 승호은 수정(경음) 최 순정 홍 성원, 이 승환(전동) 전 인철(중앙)
윤 태원(중앙) 김 회진(복자) 장 진호, 이 원기(전동) 이 정훈(서학동) 백지인,
주 창규(전동) 이 옥(노송동) 차 동훈(이리 창인동) 이 철희, 정 식(전동)

입선

장 상영 김 회자(복자) 김 신한, 범 형배, 박 현봉(전동) 이 제홍(중앙)
송 승원(덕진) 박 춘열, 범 정배, 김 관우, 윤 영아(전동) 강 시원(중앙) 박 병진
송 태현(전동) 유 미경, 안 경학(복자) 이 민옥(노송동) 김 성만(서학동) 진 숙
(중앙) 이 경희, 정 혜련, 백 화연(전동) 한 창균(중앙) 박 홍서, 문 은아(전동)
조 집례(덕진) 유 수경, 방 현숙(전동) 이 현주, 심 화성(이리) 양 숙희(전동)
장 연식(복자) 최 영숙(노송동) 강 경훈(서학동) 정. 현수(전동) 송 애연(군산)
한 영균(중앙) 전 미숙(노송동)

(중 학교)

우수상

최 덕철(전주서중)

특선

김 진곤(전동) 서 영교(전주해성)

입선

김 용운(서학동) 조 찬화(덕진) 남 궁수중(전주해성) 박 봉희(전동성당)

(고등학교)

우 수 상 : 박 홍근 (해성고등학교)

특 선 : 이 강원 (노송동)

입 선 : 이 상구 (복자)

-글 짓기-

(국민학교)

- 1 등 : 장 만식(복자) 윤 태원(중앙)
- 2 등 : 윤 병인(복자) 범 진선(전동) 이 은숙(전동)
- 3 등 : 박 은희(중앙) 김 윤배(중앙) 정 연순(전동)
- 가작 : 한 희영(전동) 김 경숙(중앙) 최 원일(전동) 김 은숙(경음)

(중 학교)

- 1 등 : 한 미영(전동)
- 2 등 : 이 정희(노송)
- 3 등 : 박 미선(전동)
- 가작 : 양 성자(복자)

(고등학교)

- 1 등 : 김 인분(전동)
- 2 등 : 김 옥희(전동) 임 경차(서학)
- 3 등 : 원 상문(서학)
- 가작 : 정 숙자(전동)



개점 1주년 할인판매
삼성 T.V 대리점
삼성 전주 센타
T.V, 냉장고, 전기용품 일절
박 영 옥(누시아)
전주극장입구 전화 ⑤ 5893

대건 신용 협동조합
사환 모집 공고
자 격 : 중졸이상 18세미만
제출서류 : 자필이력서, 졸업
증명서 및 최종학
년 성적증명서

※신자들의 건강 센터※
※신자들의 집※
성심당 한약방
대 지 사 진 관(2층)
이 상 범(필노리아노)
육교밑 구 북부배차장 옆
전화 ⑤ 6544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영진약국
-조제약 전문-
김 울태(베드로)
☎육교옆 중앙 시장통
(전화 ⑤4577)

※집단장 청부, 문의 환영※
금강 페인트사
<고급도로, 방수액, 후판등>
전화 ⑤0876 김 데레사
소방서 북편, 결핵협회 옆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 공지 사항 ※

- 1. 조국을 위한 월요 기도회 : 1975년 7월 7일 오후 8시 가톨릭 센터에서
신, 구교 합동인 조국을 위한 월요 기도회에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2. 그리스도 공동체 사제 연수회를 (6. 27-7. 4)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형제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중앙)

전화 ②2651 주임 신부 이대권
②3874 사도 회장 김영진

- 1. 사도회 월례회 : 공식 미사후
- 2. 방지거 삼회 월례회 : 7. 7일 오후 2시 30분
- 3. 꾸리아 월례회 : 다음주 오후 2시
- 4. 신부님들의 피정 관계로 연기되었던 분당 신부님 영명 축하식 : 오늘 공식 미사후 유치된 강당에서
- 5. 7. 11일 꾸리아 예비회 있음

(복자)

전화 ② 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성호

- 1. 사도회 긴급 월례회 : 공식 미사후.
사도회 전 임원과 각 신심 단체 간부 전원 참석 요망
- 2. 오기순 분당 신부님 은퇴 : 7월 7일 오전 10시
은퇴 살림 준비와 이사에 적극 협조 바람
◎ 지난주 성미 : 2말 4되 누계 370.6되

(노총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함승철
사도 회장 조해형

- 1. 사도회 월례회 : 공식 미사후
- 2. 신용조합 월례회 : 다음주일
- 3. 견진자 교리 : 공식 미사후
- 4. 성당 신축 헌금에 감사드립니다.
전동 : 12,000 덕진 : 5,400 집 세시리아 : 2,000
고 신보로사 : 2,000 기타 1,000
누계 : 22,400원 누계 : 3,634,577
◎ 신축성미 : 3되 누계 265말

(서학동)

전화 ② 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이거영

- 1. 사도 월례회 : 오늘 밤 8시 미사후
- 2. 새 신부님 탄생
첫 미사 : 상판 성당 11시
미사후 축하식에 많은 교우들의 축복을 바랍니다.
- 3. 오늘은 애령회를 위한 날
- 4. 예비자 교리 오늘 없음
◎ 애령회비 : 16,255원

(덕진)

전화 ③ 21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김홍합

- 1. 사도회 확대회의 : 사도회 임원, 고문, 감사, 구역장
공소회장 각 신심 단체장 참석 요망
- 2. 어린이 성세식 : 7. 6일 저녁 8시
- 3. 성가 연습. <성가대> 매주 수 20.시 <중·고> 토 17시
<일반인> 목 20시
- 4. 팔복동 공업단지 미사 : 7. 7일 오전 11시
- 5. 신용 조합 월례회 : 다음주

(전동)

전화 ③ 3222 주임 신부 김환철
사도 회장 이린재

- 1. 축 새 신부님 축복 미사 : 오늘 10시
- 2. 회갑 기념 추진 위원회 : 수요일 밤 8시30분
- 3. 기념 영세자 축하파티 : 오늘밤 미사후 사제관에서
- 4. 유아세례 : 다음주일
- 5. 사도회 월례회 : 다음주 저녁 미사후
- 6. 61주년 성당 건립 대지 헌금 수입 요망
◎ 성미 : 1가마 3말 2되 누계 : 14가마 4말 6되

※ 각 분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지구	분 당	소	식	봉 헌 금	지구	분 당	소	식	봉 헌 금
제 1 지구	고 김부 창	창 제 안인 음	축 새 신부님, 청년 성가대 근지 사도회 사도회	1,905원	제 3 지구	삼 레 주현 정인 동 황	축 새 신부님 사도회 월례회 사도회 성모회 월례회		43,281원
제 2 지구	대 문 월명 중	야 동 동 동 동	사도회 성심회 학생회 사도회 월례회 축 분당 신부님 교명 축일	21,905원 19,480원	제 4 지구	중 앙 노총 동 덕 진 자 서 학 동 전	본당 신부님 영명 축 하 사도회 성모회 사도회 확대 회의 본당 신부님 은퇴 축 새 신부님 탄생 축 새 신부님 탄생		41,397원 21,150원 7,450원 15,950원 12,386원 40,740원
제 3 지구	고 금 여	산 산 산	퇴재 공소 후보 침례미사 회장단 회합	1,630원	제 5 지구	남 무 원 주 장 계 안	본당 신부님 영명 축 하 축 분당 신부님 영명 축일		3,590원